

## 참된 왕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운 70인 제자 마태

-복음으로 여는 마태복음-

창세기 3:15, 마태복음 16:13-20

정운돈 목사님

\* **창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 **마16:13-20**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며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하옵소서.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주셔서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도전해야 할 구체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①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장 15절은 중요하다. 이 말씀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한다.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창세기 3장 15절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에게 한 말이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 낼 것이라고 했다. 목회자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게 벼락 맞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이 있다. 복음을 알지만 결론 내지 못한다. 성도들도 이해를 잘 못 한다. 유대인들처럼 적당히 안다. 사탄은 확실히 안다.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죽였다. 그러나 사탄은 부활의 능력을 몰랐다. 세상에서도 악인들은 악한 것을 잘하지만 선한 일에 명청하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면 여러분은 이길 수 없다. 말씀과 빛으로 이겨야 한다.

②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동정녀 마리아이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더라도 마리아는 원죄가 있지 않냐고 물으셨다. 맞다. 그래서 예수님도 고통당하셨다. 인간이 당하는 원죄의 고통을 다 당하셨다. 완전한 사람이신 것이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했다고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게 아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난 것은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많은 증거 중의 하나다. 공자도, 맹자도 아버지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임을 보여주시기 위해 동정녀에게 태어나셨다. 이만회는 다윗의 후손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죽고 부활도 하지 않았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탄을 박살내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분

이시다. 그리스도가 되는 조건은 동정녀에게,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부활하시는 것이다. 그 모든 조건이 맞아야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수백 번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게 중요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역사 중 하나이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신약성경 가장 앞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한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한다. 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했을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는데, 유대인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을 보내셨지, 유대인을 위한 왕을 보내신 게 아니다. 저는 정치하는 목회자들은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족이 소중하지만 우리는 민족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지만 민족운동을 하지 않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한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진정으로 행복한 나라가 된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 예수님을 좌우, 앞뒤, 위아래로 잘 봐야 한다. 확립적으로 보면 안 된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다. 특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지도자 계급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잘 알았다. 그러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적당히 아는 사람이 문제다. 창세기 3장에서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했을 때 사탄이 틈을 탔다. 조금 틀리게 알고 있는 게 문제다. 사탄은 그 틀린 부분을 가지고 틈을 탄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자기 방법대로 약간 틀리게 알고 있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이상한 사람이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기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인이 된다. 참된 복음과 진도를 할 수 없다. 부족하고 모르더라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렇게 살지 못해도 된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면 어느 순간 그곳에 가 있게 된다. 네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은 온유하게 오래 참는 것이라 했다. 도저히 참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 인생에 많이 온다. 그래도 참아야 한다. 나중에 시간 지나가면 그 상황도 기억 안 난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는 게 사랑이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창세기 3장으로 틀리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창세기 3장처럼 사탄에게 지고 에덴에서 쫓겨난다. 그 증거로 여러분의 얼굴에 기쁨이 없고 즐겁지 못하다. 말씀대로 살면 고통을 당하고 포로, 노예생활해도 감수할 수 있다. 정확하게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말이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원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을 통하여 진정으로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망대를 박살 낼 수 있는 참된 왕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절대 미션을 알려 주셨다.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는 건 "사탄아 물러가라"해서 물러가는 게 아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의미를 깊이 아는 만큼 사탄이 꺾인다. 따라하는 것과 알고 선포하는 것은 다르다. 사탄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하지만 예수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

### 1.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1) 첫째로, 그들은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 하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 목적, 내 돈, 내 사업, 내 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 게 교회와 전도보다 앞섰던 것이다. 그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강대국을 건설하기를 원했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강조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237전도가 우선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다. 그 게 종교고, 무속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예수를 죽이려 했다. 그들은 세상권력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팔고 십자가에 죽였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로마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낚았다 못 박고 있다. 온전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래야 사탄의 머리가 박살난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다.

(2) 두 번째로, 갈릴리 산상보훈 말씀 중 8가지 팔복을 통해서 유대인

들과 사람들의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지적해 주셨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의 개념과 다른 복의 기준을 말씀해주고 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든 사람들과 장애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당시 노예들은 저주받은 사람이어서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약한 사람과 노예와 종과 자유자가 다 똑같다고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천국을 간다고 하셨다. 예수님은 창녀도 용서하셨고 세리 마태도 받아주셨다. 마태는 우리로 치면 매국노다. 당시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무사가 아니라 민족을 착복하는 로마의 앞잡이였다. '마태복음'은 우리나라로 치면 '이완용복음'이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신약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유대인은 로마 군인처럼 자신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복 있는 자다.

(3) 세 번째로,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들의 생각과 다르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기에게 이익을 주지 않아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실까?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

(4) 유대인들과 로마인들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게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착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셨다.

## 2.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미션들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찾아보겠다. 이 말씀들과 미션들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낼 수 있다.

(1)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이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신다. 사람들은 대부분 먹을 것만 해결되면 잘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떡'을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내가 부족해서 원하는 것들로 바꿀 수 있다. 학생들이 대학 합격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취직만 하면, 결혼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취직하고 결혼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힘들어지기 시작한다.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되면 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그리스도로 행복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다. '떡'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생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방향을 알면 못 하더라도 응답을 받는다. 강단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녹아들어서 갈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살아날 것이다. 강단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말씀을 약간 틀리게 붙잡았다. 우리는 강단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게 하신다고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제가 참사랑교회 오고 교회에서 지금 여러 핵심과 모임을 하는 게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다. 나는 시간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를 질문하며 일을 진행해나가야겠다.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셔라. 이 결론을 내려야 사탄을 이길 수 있다. 즉, 사탄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이때 발휘될 수 있다.

(2) 두 번째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

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주의 것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란다.

(3) 또한 세 번째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고백이, 바로 재앙과 저주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발휘할 수 있는 고백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기에 나오는 '반석'은 그리스어로 '페트라(Πέτρα)'이다. 베드로는 '작은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페τρα는 큰 기초석을 뜻한다. 천주교는 잘못 알고 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이 권세를 사용해 보시기 바란다. 다 함께 복창해 보겠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4) 다음으로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대표적 미션을 주셨다. 이 미션을 붙잡을 때 사탄이 박살난다. 이게 나의 미션이 아니면 흑암세력을 이길 수 없다. 인생에 필요 없는 고생을 해야 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겠다고 하셨다. 이 237세계복음화의 말씀만 붙잡아도 축복의 문이 열릴 것이다. 세계의 역사와 현대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제, 스포츠,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세계를 향해 도전한 사람들은 큰 응답을 받았다. 세계복음화를 위해 세계를 향해 도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다. 지금 우리 웹넛들이 호주와 뉴질랜드에 가 있다. 그냥 여행하고 싶고 관광하고 싶어서, 유학하고 싶어서 가면 안 된다. 가는 이유가 세계복음화여야 한다. 내가 언어를 공부하고 배우는 이유도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다.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237나라 5천 종족 선교를 위하여 원니스되었을 때 흑암 세력은 꺾일 것이다.

오늘은 7여정의 기도문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7.7.7기도문 중에서 7여정은 성삼위 하나님,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 9가지 흐름, 62가지 삶, 교회와 캠프와 예배다. 기도문을 따라 읽어주시기 바란다.

① 첫째, 하나님 나와 내 속에 임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하옵소서.

② 두 번째, 나에게서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길을 찾기 위해 10가지 비밀 누리게 하옵소서.

③ 세 번째, 사람들은 듣는 대로 말하고 생각대로 말하고 추측대로 말하고 더해서 말합니다. 나에게 10가지 발판이 놓이게 해 주옵소서.

④ 네 번째, 어떤 어려움도 복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5가지 확신, 내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⑤ 다섯 번째, 나와 현장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9가지 흐름 누리게 해 주옵소서.

⑥ 여섯 번째, 62가지 평생에 누릴 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⑦ 일곱 번째, 오늘 어디 어디 갑니다. 거기는 캠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미션 안에서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팅해 가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 축원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왕 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비밀과, 말씀과 미션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모든 종족을 살리고 모든 세상의 분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응답의 주역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